

대승불교 변상도로 피어나다

한국미술사연구소, '대승불교의 설법변상도' 미술사 강좌 6월 7일까지

대승불교에서 '대승'은 큰(maha) 수레(yana), 즉 많은 사람을 태우는 큰 수레를 뜻하며, 일체 중생의 제도(濟度)를 그 목표로 했다. 따라서 '설법'은 대승불교 전파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모든 중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문화 · 미술은 대중들이 설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 조각 · 판화 형태로 만들어진 표현수단이다. 그 중 변상도(變相圖)는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불교 설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도 높으며 대승불교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적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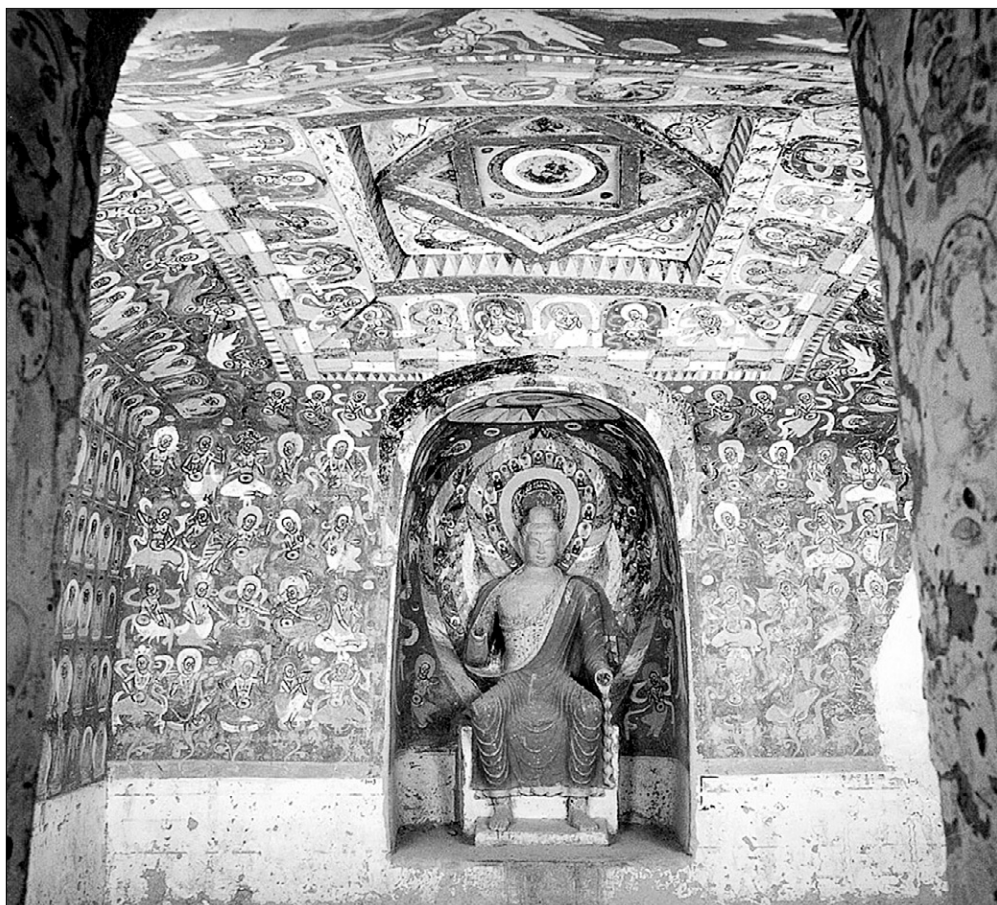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승불교의 설법변상도'를 주제로 3월 9일~6월 7일 미술사 강좌를 연다. 변상도를 중심으로 대승불교 문화와 그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다.

강좌는 3월 15일부터 △대승불교의 탄생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간다라 설법변상도 △아라바티 설법변상도 △굽타시대 아잔타석굴 △서역 키질석굴 △둔황석굴 △중국 남북조시대 △당 설법변상도 △불교의 수용과 통일신라 · 고려시대의 설법변상도 △조선불화 △아미타 목각탱 설법변상도를 주제로 문명대 교수가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매주 월요일 2시에 진행한다.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담은 그림을 설법도상이라고도 하지만 왜 변상도라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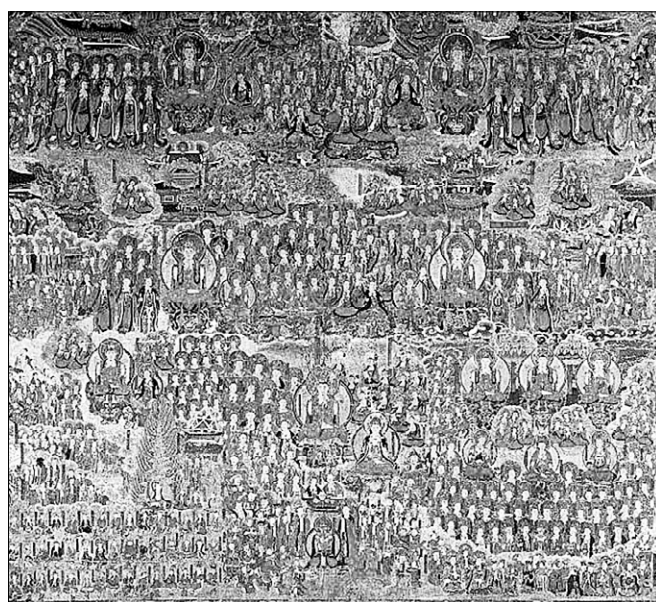
문명대 교수는 "대승불교사상은 유허파와 중관파가 큰 대세이며, 서역 · 중국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 내용을 설법도상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며 "대승불교의 줄거리를 설법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전의 내용 · 사상 · 작가에 따라 변화를 주는 그림 혹은 조각이라 해서 변상도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표현한 것을 팔상도(八相圖)라고 한다. 이 그림은 하나로 고정된 장면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變化)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변상도라고 일컫는 것이다. 변상도에는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와 일대기를 나타낸 불전도(佛傳圖), 서방정도의 장엄도가 주를 이룬다. 변상도는 인도에서 유래돼 중국과 우리나라로 전래됐다. 인도에서는 부처님의 열반 뒤 산치(Sanchi)탑이나 아잔타(Ajanta)석굴 같은 곳에 벽화로 불전 · 본생



중국 둔황 272굴 정벽 설법도 전경(5호 16국 복량)(위).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順天 松廣寺 華嚴經變相圖). 비단 바탕에 채색해 그린 그림으로, <화엄경>의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다(오른쪽).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에 관한 변상도를 그린 것이 대다수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변상도는 석굴 벽화나 조각으로 많이 표현됐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불화로, 조선시대에는 목각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많다.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은 보물 제1366호인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를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화엄경(華嚴經)> 역번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을 바탕으로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담았다. 문명대 교수는 "화엄경 변상도"는 복잡한 설법장면을 한 화면에 빚어낸 정도로 밀도 높게 묘사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고 정확한 표현력과 완벽한 구성력, 그리고 빼어난 필력과 조화로운 색채감 등 완성도 높은 조선 후기 불화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상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벽화나 탱화 외에 경전의 속표지에도 즐겨 그려졌다. 특히 경전에 많이 그려진 것은 경전의 어려운 내용이나 심오한 교리를 한 폭의 그림에 압축해 나타냄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그 뜻을 이해하고 불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문 교수는 "변상도는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집대성해 놓은 것으로 시대별로 심오한 내용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 불교미술"이라며 "변상도의 가장 큰 목적이 중생교화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 대승불교의 교리와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사연구소는 3월 20일 오후 2시 종로구 장신동 지장암 회관에서 '지장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명대 명예교수(동국대)가 '지장암의 불상과 광해군(光海君)의 발원목(木) 비로자나불상의 의의'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전윤미 연구원(한국미술사연구소), 손신영 교수(전북대)는 '지장암의 불화와 수(繡) 지장보살도' '하천(夏天작 관음, 지장보살상' '지장암 사원구조와 건축'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673-3426 이나은 기자

연등축제로 불자 자부심 상승

중앙승가대 걱정 스님 '연등축제 포교효과 연구'

연등축제의 핵심 소재인 연등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주는 불을 상징하는 인류 보편적 기호면서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불교전통문화를 상징한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불교문화를 가까운 도심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는 연등축제는 일반 시민들과 불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중앙승가대 걱정 스님은 불교학 연구회(회장 본각)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제24호에 기고한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성 모델 연구'에서 불교 연등축제의 포교효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각정 스님은 "연등축제는 후대가 부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종교축제이기도 하지만 일반시민과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며 "축제는 기본 성격으로 인해 일회적 접촉에 그쳐 일반대중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등축제가 일반시민들과 불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각 세대들의 경험과 실행 생활특성, 연등축제참가 정도가 연



불교학연구회가 최근 펴낸 <불교학연구> 24호.

등축제의 포교효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했다. 2009년 4월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화합한마당'에 참가한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할수록 사찰이나 신행단체를 통한 단상 동원의 차원을 넘어 자발적으로 연등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등축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1~5점의 점수를 부여해 분석한 결과 종교적 효과 4.04점, 정서적 효과 4.11점, 문화적 효과 4.13점으로 나타났다.

스님은 "이 분석은 연등축제가 문화포교의 프로그램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리교육을 강화하는 것 보다 연등축제와 같은 불교문화포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문화포교의 방안으로 "고려부터 조선중기까지 이어졌던 '호기놀이'를 부활시키는 것이 연등축제의 의미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 제시하며 "부처님오신날 가족들이 모여 연등을 만들고 매달면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를 이해하고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성보' 11호 발간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호탄)는 최근 <성보> 제11호를 간행했다.

책에는 △불교문화재 정책 기조(문화부) △관불과 연등불(문화부) △조선전기 감로도에 표현된 기혈(유경희 원광대 외래교수) △군수리 사지와 능산리사지의 건물지 비교를 통한 축조기법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김태형 공주대 외래교수) 등 논문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아미달마 철학'

보조사상연구원 세미나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0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아미달마의 철학과 논쟁'을 주제로 제89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구사론 <파이프>에 나타난 자이는 중과 그 비판'을, 황정일 동국대 연구조교수가 '법구의 삼세실유설은 전법설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02)733-5311

이나은 기자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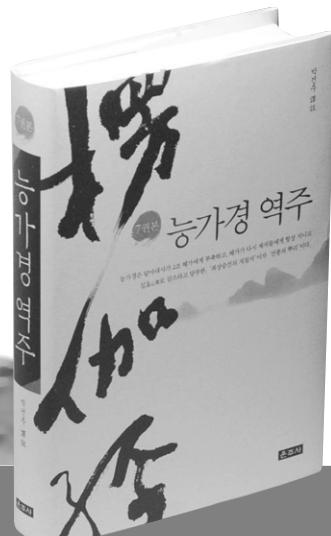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달마대사가 혜가에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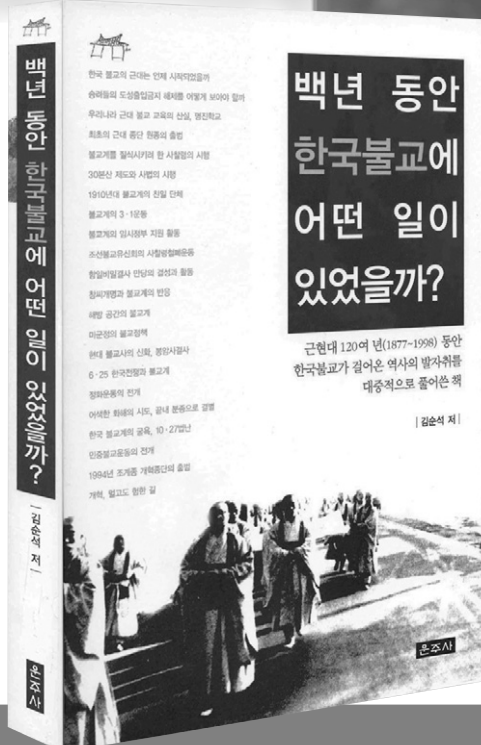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석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